

KEDI BRIEF

발행일 2026. 09. 22.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고영선

편집 성과확산실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연락처 043-530-9231, 9237

대학 통폐합, 무엇을 바꾸었나?¹⁾

- 대학 경쟁력은 개선, 구조조정 효과는 제한적

김택형 부연구위원

지난 25년간 대학 통폐합 사례는 총 37건(75개 대학)에 달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통폐합 이후 입학경쟁률과 외국인 유학생 수 등 경쟁력 지표는 개선되고 인적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폐합 직후 감소했던 교원·학과 수는 이후 다시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국공립대학의 구조조정 효과는 단기적으로도 미미하였다. 향후 대학 통폐합 정책은 대학 수 감소나 입학 정원 감축과 같은 단기적 구조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학의 내실 운영과 특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사·중복 학과와 조직의 실질적 조정 등 내부 기능 재편을 핵심 성과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학 통폐합 #고등교육 구조개혁

#단절적 시계열 분석 #학령인구 감소

1) 본 브리프는 2025년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로 수행된 「대학 통폐합 과정 쟁점 분석」(임종현 외, 2025)의 6장 '데이터로 본 통폐합 대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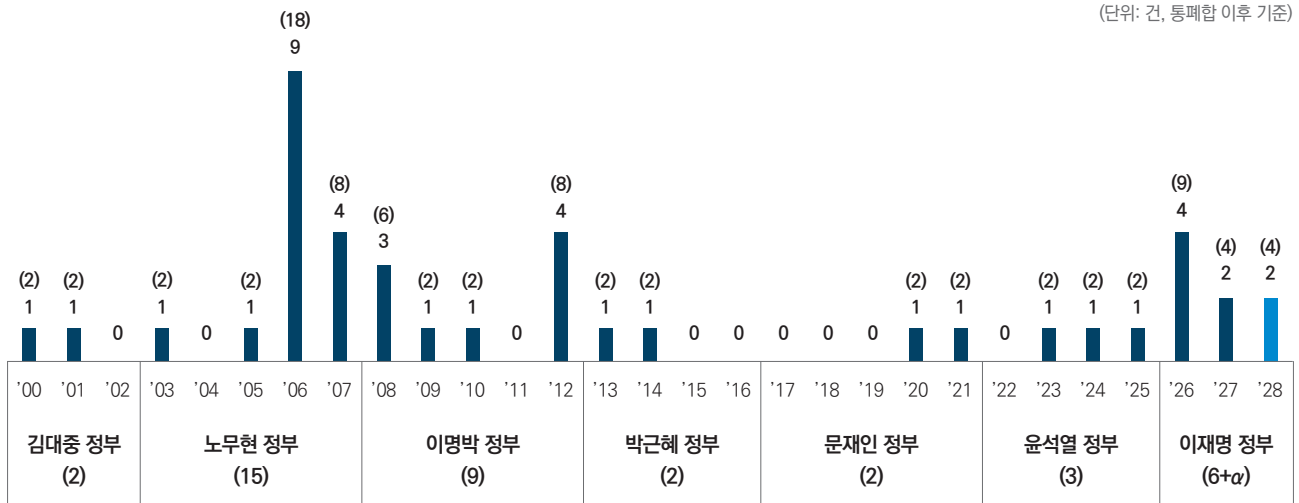
1. 들어가는 말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필요성으로
대학 통폐합이
핵심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가. 학령인구 급감 대응과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통폐합’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는 지난 수십 년간의 급격한 양적 팽창을 거쳐 현재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학 신입생 수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7만 명 감소하였고, 출생아 수 추이를 고려할 때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손윤희 외, 2024).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대 정부는 국립대학 통폐합, 사립대학 구조조정,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을 실시하여 대학 통폐합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글로벌대학30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통해 대학 통폐합 또는 연합 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1]에서 보듯이 2000년부터 2026년까지의 대학 통폐합은 총 37건(75개 대학)으로 노무현 정부(15건)와 이명박 정부(9건) 정부 시기에 활발하였고, 이후 소강 상태였다가 윤석열 정부(3건)를 지나 이재명 정부(6건+ α)²⁾에 들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중이다. 향후 고등교육 체제 재편 과정에서 현실적 가능성이 높은 정책 선택지로 주목받는 대학 통폐합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여 바람직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연도별(정권별) 통폐합 대학 현황



출처: 임종현 외(2025, p.17). [그림 II-1]을 바탕으로 최근 자료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음. 1건의 통폐합은 2개 이상의 대학이 통폐합된 것을 의미함. 괄호 안은 통폐합 대상 대학 수.
'28년 숫자는 예상치.

2) 연구 종료 시기 이후 확정된 대학 통폐합 사례는 2026년에는 총 4건으로 강원대(+강릉원주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원광대(+원광보건대) 등이며, 2027년 2건 부산대(+부산교대), 조선대(+조선간호대) 등임. 2028년을 목표로 진행 중인 대학은 충남대+국립공주대, 충북대+한국교통대 등이 있음.

대학 통폐합의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
대학 경쟁력, 인적 규모,
구조조정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나. 통폐합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 부족과 데이터 기반 양적 분석의 필요성

이처럼 대학 통폐합이 지속해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수를 산술적으로 줄인 것 외에 무슨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성과가 ‘언제, 얼마나,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으로도 대학 통폐합 관련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 25년간 축적된 통폐합 대학의 변화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그간의 성과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브리프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 통폐합이 대학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통폐합 시점이 대학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단절적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ITS)을 적용하여 통폐합 직후의 단기 효과와 이후의 장기 추세 변화가 ‘대학경쟁력’, ‘인적 규모’,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밝히고,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향후 대학 통폐합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 개요

가. 통폐합 27건, 37개 캠퍼스 사례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분석

분석 대상은 2000년부터 2026년까지 고등교육통계(KEDI) 및 대학정보공시 자료에서 확인되는 대학 통폐합 사례 37건 중 통폐합 이전 시점의 데이터가 없거나 통폐합이 최근에 이루어져 통폐합 이후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10건을 제외한 총 27건(54개 대학)의 통폐합 사례이다. 분석의 기초 단위는 통폐합 이후를 기준으로 개별 캠퍼스(본교, 제2캠퍼스)로, 총 37개 캠퍼스가 해당된다.

통폐합 대학 54개,
27건을 대상으로
일원화 통폐합(34개),
이원화 통폐합(20개)을
분석대상으로 함

나. 통폐합 후 캠퍼스 유지 여부에 따른 유형 구분

대학 통폐합은 통폐합 이후 데이터의 공시 방식과 캠퍼스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표 1〉 및 [그림 2] 참조).

- 첫째, ‘일원화 통폐합’은 두 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대학 데이터만 존재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으로 34개 대학이 17개 대학으로 통합되었고, 각 대학을 하나의 캠퍼스로 간주하여 17개 캠퍼스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로 한쪽 대학의 규모가 작거나 단일 학문 중심 대학인 경우에 나타나며, 사립대학(76.5%)의 비중이 높다. 통폐합 이전에 개별 대학으로 존재하던 데이터는 합산(예: 입학자 수)하거나 가중 평균(예: 입학경쟁률)하여 통폐합 이후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 둘째, ‘이원화 통폐합’은 통폐합 이후에도 대학이 ‘본교+제2캠퍼스³⁾’ 형태로 기존 캠퍼스를 유지하며 캠퍼스별로 데이터가 분리 공시되는 유형이다. 20개 대학이 이 유형으로 통폐합되어 10개 대학이 되었다. 분석 대상은 캠퍼스 기준 20개이다. 국공립대학(80%)과 비수도권 대학(75%)의 비중이 높다.

[그림 2] 통폐합 후 캠퍼스 유지 여부에 따른 대학 통폐합의 유형



출처: 임종현 외(2025, p.128). [그림 IV-1]을 인용함.

〈표 1〉 통폐합 방식에 따른 분석 대상의 분포(통폐합 이후 기준)

구분		일원화 통폐합		이원화 통폐합		전체	
		수(개)	비중(%)	수(개)	비중(%)	수(개)	비중(%)
설립유형	국공립	4	23.5	16	80.0	20	44.4
	사립	13	76.5	4	20.0	17	55.6
지역	수도권	7	41.2	5	25.0	12	35.2
	비수도권	10	58.5	15	75.0	25	64.8
합계		17	100.0	20	100.0	37	100.0

출처: 임종현 외(2025, p.129). 〈표 VI-1〉을 재구성함.

단절적 시계열 분석은
통폐합 시점의
수준(level) 변화,
기울기(slope) 변화,
통폐합 이후의 기울기를
각각 추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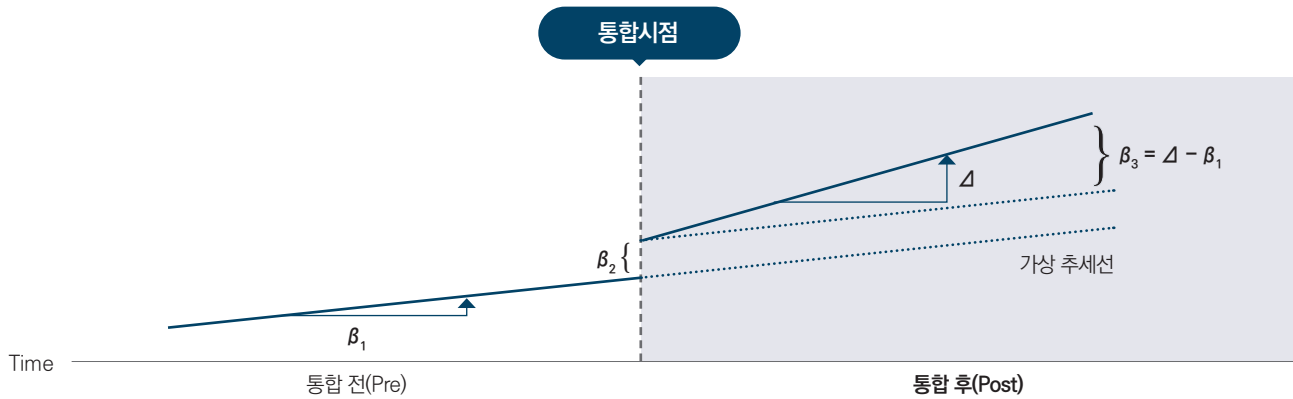
다. 통폐합 직후 수준 및 기울기 변화와 통폐합 후 추세를 구분하여 추정

대학마다 통폐합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폐합 대학을 대상으로 단절적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ITS)을 실시하였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대학 고유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 고정 효과 모형(fixed-effect model)을 적용하였으며, 각 대학의 통폐합 시점을 기준으로 연도를 변환한 통일 시간 변수를 활용하였다. 단절적 시계열 분석⁴⁾은 통폐합 시점을 전후로 한 종속변수의 ‘수준(level) 변화’(β_2)와 ‘기울기(slope) 변화’(β_3)를 추정할 뿐만 아니라 통폐합 이후의 기울기($\Delta = \beta_3 + \beta_1$)도 추정 가능하여 통폐합의 단기 효과와 중장기 추세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림 3] 참조).

3) 제2캠퍼스란 하나의 대학이지만 교지만 여러 곳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본교와 동일한 대학임. 그러나 캠퍼스별로 교육여건과 학생구성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어 고등교육공시에서는 분리 공시하고 있음. 본교와 별도로 설치 인가를 받은 ‘분교’도 캠퍼스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으나(예를 들어,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본 연구에는 이러한 분교를 미포함함.

4) 단절적 시계열 분석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음. $Y_t = \beta_0 + \beta_1 \text{Time}_t + \beta_2 \text{Post}_t + \beta_3 (\text{Time}_t \times \text{Post}_t) + \varepsilon_t$

[그림 3] 단절적 시계열 분석 결과의 의미



출처: 임종현 외(2025, p.139). [그림 IV-2]를 인용함.

대학 통폐합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성과 영역은 ‘대학 경쟁력’, ‘인적 규모’, ‘구조조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대학 경쟁력 영역에는 입학경쟁률, 신입생 총원율, 외국인 유학생 수와 같은 지표를 포함하였다. 입학경쟁률이나 신입생 총원율이 상승하면 그만큼 대학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 수 역시 경쟁력 지표로, 유학생 수가 늘어날수록 대외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⁵⁾ 인적 규모에는 입학정원, 재학생 수를 포함하였다. 대학 통폐합이 학령 인구 감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가져온 직접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함이다.⁶⁾ 마지막으로, 구조조정 영역에는 교원 수(전임, 비전임), 직원 수, 학과당 교원 수와 같이 인적 운용 지표와 학과 수와 같은 조직 운용 지표를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통폐합에 따라 교직원 및 학과 수가 감소하여 내부적인 효율성이 높아졌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표 2〉 대학 통폐합의 성과 지표

영역		지표명	지표 설명
경쟁력		입학경쟁률(비)	지원자 수(명)/입학정원(명)=비율(ratio)값
		신입생 총원율(%)	입학자 수/입학정원(명) × 100 = 퍼센트(%)값
		외국인 유학생 수	명
인적 규모		입학정원, 재학생 수	명
구조조정	인적 운용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직원 수	명
		학과당 교원 수(전임, 비전임)	(전임교원 수 + 비전임교원 수)/학과 수
	조직 운용	학과 수	개

주: 입학정원, 지원자 수는 정원 내외 정원 외를 모두 포함한 숫자로 분석에 사용함.

출처: 임종현 외(2025, p. 136). 〈표 VI-7〉을 재구성함.

5) 대학 경쟁력 지표로서 취업률, 연구 성과, 재정 건전성,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 통폐합의 질적·중장기적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자료의 한계상 이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언급하고자 함.

6) 대학 통폐합은 정원 감축을 전제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통폐합 이후 얼마나 인적 규모가 줄어들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일원화 대학은 통폐합 후 이전 두 대학 규모를 합산한 것과 비교하고, 이원화 대학은 각 캠퍼스별로 비교하는 것임.

3. 데이터로 본 통폐합 대학의 변화

대학 통폐합 이후
입학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유학생 수 등 대학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

인적 규모는
단기간에 크게 줄어들었고,
통폐합 이후에도
정원 감축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적·조직 운용 측면에서
비전임교원·학과 수는
단기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전임교원·교원은 유지되었고,
모든 지표가 통폐합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분석 결과, 대학 통폐합은 대학의 경쟁력과 인적 규모 측면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단기적 감축 이후 장기적으로는 재팽창하는 양상이 나타났다(〈표 3〉 참조).

- 경쟁력 측면에서 입학경쟁률은 통폐합 직후 유의하게 상승(1.66)⁷⁾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폐합 이후 기울기는 정(+)적으로 변화(0.11)하여 이전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기울기(0.02)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며 통폐합 이후 증가 추세(0.13)를 나타냈다. 신입생 충원율도 통폐합 직후 수준(2.51%p 증가)⁸⁾과 기울기 모두(0.499%p 증가)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다. 통폐합은 해외 학생 유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통폐합 직후 약 99명 증가하였고, 통폐합 이후에도 매년 약 35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 인적 규모 측면에서 입학정원·재학생 수는 통폐합 직후 급감(각각 -457명, -827명)하여 대학의 규모 축소에 가져온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입학정원의 경우 통폐합 전 감소 추세(매년 -19.9명)를 지속적으로 유지(매년 -16.8명)하여 장기적 규모 축소 효과도 가져왔다. 이는 대학 규모를 줄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자 한 통폐합 정책의 목표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인적 운용 측면에서 비전임교원은 단기 감축 후 다시 늘었고, 전임교원은 통폐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통폐합 직후 비전임교원 수는 약 130명, 학과당 교원 수는 약 7.7명 감소하여 통폐합 과정에서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제고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임교원 수와 직원 수는 통폐합 전후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정규직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함께 통폐합 과정에서 구성원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또한 통폐합 이후의 기울기를 보면 모두 정(+)적으로 통폐합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직 운용 측면에서 통폐합 직후 학과 수는 약 11개가 감소하여 통폐합 과정에서 유사·중복 학과가 정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폐합 이후 연 0.68개씩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7) 경쟁률의 값은 비율(ratio)값으로 경쟁률이 2:1이면 2라고 표기하고 1.66 상승하였다면, 2:1에서 3.66:1로 증가한 것을 의미함.

8) 충원율의 경우는 퍼센트값으로 2.51의 증가는 2.51%p 증가를 의미함. 연구보고서 원문에는 비율(ratio)값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100을 곱하여 퍼센트(%)로 변환하였음.

- 종합하면, 대학은 기본적으로 양적 팽창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며, 통폐합은 단기적 충격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인적 및 조직 운용의 효율화에 미친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교원 수 증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와 같은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학과 수 증가는 사회·기술 변화에 대응한 전공 영역의 다변화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표 3〉 대학 통폐합이 대학 경쟁력, 인적 규모,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ITS 분석 결과)

영역		변수명	통폐합 이전 기울기(β_1)	통폐합 시점 수준 변화(β_2)	통폐합 후 기울기변화(β_3)	통폐합 이후 추세(Δ)
경쟁력		입학경쟁률(비)	0.02	1.66*** ▲	0.11** ▲	0.13*** ▲
		신입생 충원율(%p)	-0.395** ▽	2.51** ▲	0.499*** ▲	0.104
		외국인 유학생 수	15.18*** ▲	99.45** ▲	19.86*** ▲	35.04*** ▲
인적 규모		입학정원	-19.92*** ▽	-456.69*** ▽	3.09	-16.83*** ▽
		재학생 수	-5.75	-826.93*** ▽	27.98	22.23
구조조정	인적 운용	전임교원 수	5.14*** ▲	7.49	-1.62	3.52*** ▲
		비전임교원 수	15.7*** ▲	-129.71*** ▽	20.80*** ▲	36.5*** ▲
		직원 수	6.58*** ▲	-15.48	5.45*** ▲	12.02*** ▲
		학과당 교원 수	0.49	-7.69** ▽	0.17	0.65 ⁺ ▲
	조직 운용	학과 수	0.00	-10.50*** ▽	0.68 ⁺ ▲	0.68** ▲

주: *** $p < .001$, ** $p < .01$, * $p < .05$. ▲는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숫자임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숫자임을 의미함.

출처: 임종현 외(2025). 〈표 VI-15〉, 〈표 VI-16〉, 〈표 VI-18〉, 〈표 VI-19〉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통폐합 효과는 대학의 소재지와 설립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4〉는 통폐합 시점에서의 수준 변화가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대학일 때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낸 결과표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⁹⁾

대학 통폐합 효과는 소재지 및

대학 유형별로 달라짐

- 수도권 대학은 입학경쟁률 상승

- 국공립 대학은 인적 규모,

학과 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

- 기준이 되는 통폐합 시점의 효과인 β_2 는 ‘비수도권 사립대’인 경우의 통폐합에 따른 수준의 변화 값으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사립대학의 입학경쟁률은 1.13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수도권 대학은 입학 경쟁률이 2.3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 유의), 국공립대학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입학정원의 경우, ‘비수도권 사립대’는 통폐합으로 인해 약 722명의 감축이 있었고, 수도권 대학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국공립 대학은 그 감소폭을 상당 부분 완화(-722명 + 567명 = -155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측면에서 교원 수에 미친 영향은 소재지나 설립유형 간 차이가 없었다. 학과 수의 경우 ‘비수도권 사립대’는 약 37개가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대학은 그 감소 폭을 상당 부분 완화시켰고(-37개 + 16개 = -21개), 국공립대학은 오히려 학과 수가 증가하였다(-37개 + 38개 = +1개).

9) 계수를 생략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음. $Y_{it} = \text{time}_{it} + \text{post}_{it} + \text{post} \times \text{time}_{it} + \text{metro}_{it} + \text{metro} \times \text{time}_{it} + \text{metro} \times \text{post}_{it} + \text{metro} \times \text{post} \times \text{time}_{it} + \text{public}_{it} + \text{public} \times \text{time}_{it} + \text{public} \times \text{post}_{it} + \text{public} \times \text{post} \times \text{time}_{it} + a_i + t_t + e_{it}$. 이 중 post_{it} , $\text{metro} \times \text{post}_{it}$, $\text{public} \times \text{post}_{it}$ 의 계수값이 〈표 4〉에 기재됨.

〈표 4〉 통폐합 시점 수준 변화(β_2)의 대학의 소재지 및 설립유형별 차이

세부 영역		변수명	‘비수도권+사립’ 통폐합 시점(β_2)	수도권 - β_2	국공립대 - β_2
경쟁력		입학경쟁률(비)	1.13	2.30** ▲	-0.47
		신입생 충원율(%p)	7.18** ▲	-12.6*** ▽	-7.56** ▽
		외국인 유학생 수	-5.83	62.80	117.81
인적 규모		입학정원	-722.47*** ▽	-88.68	566.74*** ▲
		재학생 수	-2056.38*** ▽	1,081.60** ▲	1,665.00*** ▲
구조조정	인적 운용	전임교원 수	15.86	21.86	-24.89
		비전임교원 수	-62.87	-74.30	-81.35
		직원 수	15.76	-54.47* ▽	-21.64
		학과당 교원 수	-8.9	8.83	-3.08
	조직 운용	학과 수	-36.71*** ▽	16.31* ▲	38.45*** ▲

주: *** $p < .001$, ** $p < .01$, * $p < .05$. ▲는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숫자임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숫자임을 의미함.
출처: 임종현 외(2025). 〈표 VI-17〉, 〈표 VI-20〉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통폐합 효과는 통폐합 방식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이원화 통폐합 대학(이하, 이원화 대학)은 일원화 통폐합 대학(이하, 일원화 대학)보다 경쟁력, 인적 규모 감축, 구조조정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통폐합 시점 수준 변화(β_2)의 대학 통폐합유형별 차이

세부 영역		변수명	통폐합에 따른 수준 변화	
			일원화 통폐합 대학(β_2)	이원화 통폐합 대학 - β_2
경쟁력		입학경쟁률(비)	2.35*** ▲	-1.36* ▽
		신입생 충원율(%p)	5.02*** ▲	-4.09* ▽
		외국인 유학생 수	116.97	-38.29
인적 규모		입학정원	-673.17*** ▽	413.88*** ▲
		재학생 수	-1,240.66*** ▽	785.32
구조조정	인적 운용	전임교원 수	24.24* ▲	-30.02* ▽
		비전임교원 수	-135.70*** ▽	19.01
		직원 수	-30.53	31.81
		학과당 교원 수	-12.86* ▽	9.33
	조직 운용	학과 수	-21.36*** ▽	20.17*** ▲

주: *** $p < .001$, ** $p < .01$, * $p < .05$, + $p < .1$. ▲는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숫자임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숫자임을 의미함.
출처: 임종현 외(2025). 〈표 VI-21〉, 〈표 VI-22〉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대학 통폐합 효과는

통폐합 유형에 따라 이질적

- 일원화 대학은 경쟁력 제고, 인적 규모·조직 조정 효과가 뚜렷
- 이원화 대학은 상대적으로 저조

- 〈표 5〉는 통폐합 유형에 따라 통폐합 시점의 효과인 β_2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원화 대학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쟁력 지표의 개선, 인적 규모 감축, 구조조정 효과(전임교원 수 제외)가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원화 대학에서는 경쟁력의 상승 폭, 인적 규모 감소 폭이 다소 완화된 효과를 보였다.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이원화 대학은 학과 수 감소 폭을 만회하여 학과 수를 유지한 결과를 낳았다. 다만, 전임교원의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4명 - 30명 = -6명). 이처럼 이원화 대학의 경쟁력, 인적 규모, 구조조정의 효과가 대체로 미흡한

것은 앞의 <표 1>에서 보았듯이 이 통폐합 유형이 대부분 국공립대학이고 각 개별 캠퍼스를 유지하는 특징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통폐합 시 기존 캠퍼스의 존폐 여부, 대학의 유형,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데이터가 시사하는 대학 통폐합의 방향

대학 통폐합은 경쟁력 제고와 규모 감축에는 효과적이었으나, 구조조정 효과는 제한적

대학 통폐합은 특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및 내부 기능 재편에 초점 맞춰야

분석 결과, 대학 통폐합은 입학경쟁률·외국인 유학생 수 등 경쟁력 지표 개선에 기여하였고, 입학정원 등 인적 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구조조정 영역에서는 통폐합 직후 비전임교원·학과 수가 등은 감소하였으나, 통폐합 이후 교직원 및 학과 수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통폐합의 구조조정 효과는 단기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통폐합 정책은 단순히 대학 수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통폐합 이후 내실 있는 대학 운영과 특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적정 정원 산정, 중복 학과 정비, 재정과 자산의 통합, 학교법인과 거버넌스의 재편 등 실질적인 구조개선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통폐합의 효과는 사립대학에 비해 국공립대학에서 좀 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립대 통폐합은 규모 감축과 더불어 캠퍼스와 조직의 기능 재편 및 특성화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복 학과의 실질적 조정, 캠퍼스별 기능 특성화,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정조직 통합 등 내부 기능 재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대학의 명칭만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캠퍼스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구성하는 통합을 유도하여야 한다.

본 브리프의 분석은 입학경쟁률, 충원율, 학생 및 교직원 수, 학과 수 등 대학 통폐합 전후의 양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취업률, 연구 성과, 재정 건전성,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 통폐합의 질적·중장기적 성과를 함께 분석하고, 통폐합 대학과 통폐합을 하지 않은 유사 대학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인과관계 식별 전략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본 분석은 대학 통폐합 지원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이후의 대학 통폐합과 같은 주요 정책 설계에는 반드시 이러한 실증 분석이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참고문헌

손윤희, 민윤경, 백승주, 임종현, 서경화, 홍유정(2024). **지역사회 맞춤형 대학 입학자원 예측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현, 양희준, 김택형, 우선영(2025). **대학 통폐합 과정 쟁점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The logo for KEDI BRIEF. The word "KEDI" is in a bold, white, sans-serif font. The word "BRIEF" is in a lighter, white, sans-serif font, positioned directly below "KEDI".

KEDI BRIEF

www.kedi.re.kr